



고대의료원, 의료불모지 몽골에 '코리아 인술' 심어

여름휴가 반납하고 '열띤 인술' 펼친

39명의 몽골 해외 의료봉사단



여행은 못가도 해외의료봉사는 간다!

교수진 8명 등 40여명의 대규모 의료봉사단 파견

공항에서 15시간 버스로 달려야 도착하는 오지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지난 8월 5일 오전 11시 안암병원 3층 로비에서 국제적인 의료낙후지역으로 손꼽히는 몽골에 코리아의 인술을 펼칠 40여명의 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봉사기간은 11일까지 7일간. 이날 몽골에 파견되는 봉사단은 고려대 안암병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를 단장으로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를 비롯한 안과, 유방내분비외과, 신장내과, 신경외과 등 8 명의 교수진과 의과대학생, 전공의 3명, 약사 1명, 간호사 10명, 행정지원 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될 몽골의 도르노트지역은 몽골의 가장 동쪽 끝 오지로 비포장도로를 15시간 달려야 하는 곳으로, 의료수준 또한 낙후되어 한국에서 쉽게할 수 있는 치

료들도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번 봉사팀이 방문한 병원은 도르노트 도립의료원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300병상 정도의 규모로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어느 정



이은숙(오른쪽) · 박관태(왼쪽) 교수가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도의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최신 장비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진료팀의 방문으로 복강경 수술, 안과, 미세 수술 등을 직접 시행하여 의술을 전수했다.

현지상황 고려해 한국서 수술장비 공수해 집도

이번 몽골 해외의료봉사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수술을 현장에서 즉시 집도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을 비롯한 혈관수술, 개안수술 등의 외과적 수술이 가능했다. 또한, 해외의료 봉사팀은 러시아 접경지역인 바잉동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현지조사로 진단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윈스톱 진료를 시행했다. 또한, 중증환자는 초이발산 거점병원으로 후송해 한단계 높은 의료봉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더 나아가 봉사단은 우물파기와 청소년 캠프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공연, 의학도서관 건립 등도 병행했는데 의료팀에는 저명한 여행사진작가인 신미식 작가가 동반하여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현지인들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선물하는 의미있는 봉사도 병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윤환 단장은 "이번 몽골 해외의료봉사팀은 참석자 전원이 개인의 휴가와 비용을 사용 할 정도로 열정이 뜨거웠다. 매우 바쁘고 고된 일정이 되겠지만 단순한 투약중심의 진료를 벗어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진료, 종합적인 봉사활동으로 코리아의 인술과 고려대학교의 나눔과 배움의 정신을 각인시키고 돌아와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



현지 어린이를 안고 활짝 웃고있는 몽골 해외 의료봉사단원

거점대학병원 의학발전기금기부

10.06.08	이태량	₩ 10,000,000	10.06.28	천준	₩ 5,000,000
10.06.08	박영관	₩ 10,000,000	10.06.28	05학번학부모회	₩ 10,175,394
10.06.11	최미연	₩ 5,010,000	10.07.07	박경화	₩ 10,000,000
10.06.11	우희식	₩ 5,010,000	10.07.15	유영진	₩ 6,000,000
10.06.11	정광윤	₩ 20,000,000	10.07.20	곽동협	₩ 23,000,000
10.06.15	임도선	₩ 10,000,000	10.07.21	이상욱	₩ 10,000,000
10.06.16	손장욱	₩ 5,000,000	10.08.05	임상호	₩10,000,000
10.06.23	강석호	₩ 5,000,000	10.08.05	김화성	₩ 10,000,000
10.06.28	권용술	₩ 1,000,000	10.08.10	황정례	₩ 1,146,825

* 기간 : 2010년 6월 8일~8월 20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리아 의사들 온다는 소문 퍼지자



피지 임시진료소는 금새 북새통



수정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녀린 아이가 파르르 떨면서 우리 의료캠프를 찾았는데 금새 눈시울이 뜨거워 저서 혼났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아이가 생각나 밤에 기도를 드린다"며 뜨거운 인류애를 드러냈다.

문화와 교육 등 다채로운 교류활동 펼쳐

한편, 피지 나이셈비투 빌리지는 고대사회봉사단이 3년째 봉사 활동을 벌이는 곳으로 고대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주고 컴퓨터 등을 기증해 마을 추장이 그 보답으로 고대에 땅을 만 여 평 기증해 화제가 되었던 곳이다. 고려대사회봉사단 김영근 부단장이 이끄는 19명의 고대학생 봉사팀은 고대 도서관 임시 숙소에서 먼저 도착해 매트리스 위에 모기장과 슬리핑백을 얹은 비좁은 숙소 생활을 하며, 지역민들을 위해 컴퓨터와 한글 교육을 실시해 민간인 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해원 단장은 "작년에는 피지와 해비타트(집 짓기) 운동을 통해 교류했는데, 이번에는 의술과 한글교육을 포함한 문화전파를 통해 피지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흐뭇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진료 3일째 되는 날에는 피지 보건부장관이 병원을 방문해 고려대 해외봉사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료 일정이 전부 끝난 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가진 리셉션에는 전남진 주 피지대사, 박중석 대사관 서기관, 닥터 프란시스 빙오 피지 보건부 국장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전남진 대사는 "이러한 봉사 활동이 한국과 피지 관계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선전을 기대했다.

하루 100여명 진료보면, 10시간의 일과가 눈깜짝 할 사이

전기와 수도 없는 지역서 진료 개시

고려대의료원은 고려대사회봉사단(KUSSO)과 함께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료환경이 매우 척박한 환경인 피지에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고려대학교 이해원(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 무교학처장을 단장으로 박홍석 (안산병원 비뇨기과)부단장 등 의료진 6명, 간호사 3명, 약사 1명, 행정지원 3명, 의대생 3명과 기자단 등 18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휴양지지만 알려진 남태평양 피지의 남동부 외딴지역 나이셈비투 빌리지와 코로보 병원에서 진료활동을 펼쳤다. 이 지역은 인천에서 10여 시간 비행 후 난디 공항에서 버스로 10시간이나 달려

야 접근할 수 있는 전기와 수도가 전혀 없는 오지다. 이곳에 위치한 코로보병원에 임시로 차려진 '코리아병원'은 날마다 인산인해로 북적였다.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진료는 문을 열자마자 10명 이상의 대기자가 줄지어 서 있었고 물려드는 환자들은 외래와 수술실, 치과 등으로 진료 파트를 구성해 하루평균 100여명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쳤으며, 매일 10시간의 힘든 일과를 수행했다.

현지에서 치료 불가능한 탈장·골절 등 수술

현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탈장, 턱 골절 등 총 20여건의 크고 작은 수술을 시행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첨단 의료기기는 중증도가 비교

적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평소 엄두도 못내던 흑(피지낭종)을 떼어내는 응급수술을 받은 카라이 니상투(10)군의 어머니 위니 빈야야(38)씨는 "아들이 5년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며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저녁에 마을로 돌아와서 늦은 밤까지 주민들을 진료하며 지역민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 의료지원팀을 이끈 박홍석 부단장은 "현지 의료상황이 예상보다 열악해 깜짝 놀랐다. 봉사단이 열정으로 푹푹 뭉치지 않았다면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하면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회고했다. 어은정 간호사는 "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

[스페셜 리포트]

소셜미디어와 병원

(트위터, 유튜브, 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가 가져올 의료환경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심혈관 센터 안철민(오른쪽) 교수 강준원(가운데) 방사선사 · 박기태(왼쪽) 간호사가 안암병원 트위터(@KUMCnews)에 뜬 병원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소셜미디어" 진실된 경험에 기반한 실체적 정보 나르는 매개체

트위터, 유튜브, 미투데이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 소셜 웹환경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최근 등장한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붐도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웹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출신장을 이루거나 기업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병원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곳은 아직 없지만 향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소셜미디어는 대부분의 기성세대에게는 익숙치 않은 소통의 도구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온라인이 의로서비스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 효과 나타나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 매스미디어에서 건강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양의 정보를 퍼트리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본다. 소셜미디어가 과담을 생산하는 기능을 일부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과담에 대한 자정 효과가 훨씬 강하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 최근의 소셜 웹은 의료 이용자나 의료 주변인들이 혼란스러운 정보를 주고 받는 공간이 아니라, 충분한 발언권과 설득력을 지닌 의료인들과 기관들의 참여로 자정기능을 가진 소통의장이 되어가고 있다. 온라인의 제한된 정보로 의로서비스가 대체될 수는 없다. 온라인은 의료인에게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알게하고,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환자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이유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병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병원광고나 의사와 환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은 이야기들이 소셜웹에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일반인들은 의사는 직업적으로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사와 마주하는 환자 들은 의사의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수시로 의사와 대화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필요한 일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의사들이 참여하면서 환자들이 짧은 진료시간에는 알 수 없었던 의사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일반 환자나 고객들이 소통의 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큰 긍정적 효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헬스분야의 스토리텔러가 의료분야를 발전시킬수 있어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지만, 아직 문화(culture)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상에는 전문적으로 의학을 배운 의사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요법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

은 치료방법을 갖고 환자들을 '치료'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비전문인들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건강 관련 대화는 계속넘쳐날 것이다.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의사가 없는 곳에 더욱 의사가 필요하듯, 소셜미디어 상의 의료정보의 오류 문제, 신뢰도 개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더 많은 '건강/의학 전문가' 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권위에 기반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싫든좋든 피하기 힘든 점이다. 요약해보면 소셜미디어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건강에 대한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질적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결국은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가며 조율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점은 과거에는 전문가들 끼리만의 소통(예: 논문, 컨퍼런스)이었다면,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알기 쉽게 건강 정보를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헬스 분야의 스토리텔러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파급효과

최근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소셜미디어와 전통미디어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언론사들이 최근 10여년 동안 의사자격을 가진 의학전문기자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건강뉴스가 더욱 전문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 언론사가 의학의 각 분야별로 많은 의사를 전문기자로 두고 활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즉,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전문분야에 대해 깊이있게, 또 알기쉽게 이야기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블로그의 등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우단체도 자신들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환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다루고 있다. 과거 전통 언론은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있게 다루기는 힘들었다. 또 한가지 측면은 '나같은 사람' 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심리를 소셜미디어가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전통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의 절반 이상은 기업이나 혹은 병원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물이다. 당연히 좋은 뉴스를 부각시키고, 나쁜뉴스는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병원을 예로 들어보면 종합병원 처럼 규모가 있는 곳은 그들의 홍보결과물을 일반소비자들이 전통미디어를 통해 수동적으로 흡수하고 있었고, 동네병원 처럼 규모가 작은 곳의 소식은 주위의 아는 사람들로부터 귀동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는 의료소비자들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전통미디어를 통해서 상당부분 '과장' 이 가능한 PR이 있었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러한 '과장 영역' 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제로 나의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런점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지금과 같은 인기를 끌게 만든 것 같다. 



고려대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응급의료 시설부터 장비, 시스템까지 모든 평가항목에서 최우수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평가기

간 2008년 8월 1일~2009년 7월 31일)에서 국내 최정상급임을 다 시한번 인정받았다. 지역별, 의료기관별 응급의료체계의 전문 성과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응급 의료센터 장비, 시설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암병원과 안산 병원은 최우수등급을, 구로병원은 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2004년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줄곧 상위 권을 유지해 온 고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등급별 평가에서도 연이어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있는 것. 특히, 안암, 안산병원은 공식적으로 2년 연속 인정받음으로써 지역내 대표 응급의료센터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고대병

원 응급의료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응급의료진료 체계의 신속성, 검사 및 장비의 우수성, 타 진료과의 협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이번 평가는 급성뇌혈관질환에서의 검사, 진단, 치료, 급성기 3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재실시간 등 신진화된 진료 평가 항목들로 심사를 진행했다. 실제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된 이번 결과는 환자 치료의 수준이 최고임을 재입증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암환자 치료와 함께 뇌혈관,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급성 중증환자 진료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펼치고 있는 것을 입증받았다. 📌

성형외과 안덕선 교수,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회장 취임



성형외과 안덕선 교수가 지난 8월1일~2일 이틀 동안 동경에서 개최된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AMEWPR,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President)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며, 안덕선 회장은 앞으로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사회 개최 및 국제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는 세계의학교육연맹의 서태평양지역 산하단체로 의과대학이 있는 14개의 회원

국과 대만 및 의과대학이 없는 배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별로 WHO/WFME가 강조하는 의사의 역할과 의학교육의 인증을 위한 기준을 전파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안덕선 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차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

간호부 "A Galaxy Of Unit! 환경개선 우수부서 표창"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7월 16일(금) 오전 9시 병원장실에서 「2010 간호부 환경개선활동」 심사에서 고득점을 받은 우수 부서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심사는 지난 7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2일에 걸쳐 병동 및 외래·특수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병동(53병동, 54병동, 76병동) 및 외

래·특수부문(신생아중환자실, 신경과 외래, 비뇨기과 외래) 총 6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다. 우수 부서에는 상장과 함께 부상이 주어졌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각 부서원 모두가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어 병원이미지가 한층 밝아졌다" 며 "앞으로도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선정된 부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안암병원 간호부는 앞으로 보다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외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병원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활동을 분기별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신경외과학교실, 50년사 발간 통해 발자취 남겨



신경외과학교실(주임교수 정용구)이 지난 50년간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신경외과학교실 50년사' 를 발간했다. 국내 최초로 '신경외과' 현판을 걸고 시작한 고려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은 한국 신경외과학의 역사를 대표하는 교실로써, 역대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신경외과 의료진 양성과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대 신경외과학교실은 지난 1942년 첫 신경외과 수술을 시작한 이래 1959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독립

된 의과대학 교실로 '신경외과' 현판을 걸고 진료를 시작해 신경외과계 질환 환자에게 최초로 전문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초대 주임교수인 이주걸 교수를 시작으로 이현재 교수, 김정근 교수 등 국내 신경외과의 초석을 이룬 인물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까지 100여명이 넘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배출, 명실상부한 국내 신경외과학교실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경외과학교실 50년사' 는 지난 2009년 5월 30일 신경외과학교실 5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지난 59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고려대 신경외과학교실의 모든 것을 담은 총람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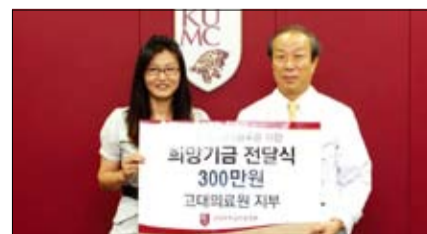
'무더위를 한방에~' 안암 친절리더 콕썰머 이벤트



안암병원 친절리더팀이 초복을 맞아 그야말로 시원하게 썰었다. 친절리더들은 이른 아

침부터 커다란 아이스박스과 냉수기를 교직원 식당앞으로 직접 옮기고 교직원들이 점심 식사후에 마실 수백여잔의 아이스커피를 손수 만들어 제공했다. 더위와 업무에 지친 교직원들을 위해 친절리더들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에 교직원들도 웃음으로 화답해 즐거움을 더했다. 📌

"어려운 환아 위해 써주세요"




안암병원은 7월 27일 오전 병원장실에서 고려대의료원 노동조합이 어려운 환아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한 저소득층 소아환우 희망기

금 300만원을 기부받았다. 이 희망기금은 고대의료원 노조는 지난 5월 안암병원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의 일부로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소아환아의 치료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앞서 21일에도 구로병원을 방문해 환아를 위한 희망기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

산부인과 의료진, 연구결과 해외서도 호평 송재윤, 박현태, 안기훈 교수 국내외 학술상 석권하며 역량 과시




안암병원 산부인과(과장 김탁) 의료진이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가 호평을 받으며 각종 학술상을 석권하는 등 남다른 연구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와 안기훈 교수는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산욕기 폐색전증 전략과 여성호르몬이 비노생식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참가한 세계 의료진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모두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어 산부인과 안기훈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도 골반장기탈출 증환자의 폐경후수술까지의 시간과 환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산부인과 박현태 교

수도 지난 5월 열린 대한생식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남성호르몬 과다증이 있는 비만하지 않은 다낭성난소증후군 여성환자에서의 호르몬 피임과 메트포민(경구용 혈당강하제) 동안의 항뮐러 호르몬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산부인과장 김탁 교수는 “요즘 산부인과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젊은 스텝들의 뛰어난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모든 산부인과 스텝들이 합심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산부인과 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파엘 인터내셔널과 개도국 지원 협약




안암병원이 7월 15일 오후 3시 병원 회의실에서 라파엘 인터내셔널과 개도국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몽골 등 개도국 의료진 초청 연수와 라파엘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현

지 세미나에 안암병원 의료진이 직접 참여하는 등 개도국의 의료자립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창덕 안암병원장은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의 해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은 지난 2008년 라파엘 인터내셔널의 모태인 라파엘 클리닉과 의료봉사 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료진료 등 의료봉사 지원을 펼쳐왔다. 

고대의대생, 싱가포르에서 의학실습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욱) 학생 10명이 싱가포르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의학실습을 떠났다. 7월 30일 학장실에서 발대식을 가진 의대생들은 8월 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일주일간 탄독생병원(Tan Tock Seng Hospital) 등을


돌아보며 싱가포르 의료환경과 보건시스템을 경험하고 오게 된다. 서성욱 학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해외 의료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경험은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산업의 국제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의대는 지난해부터 예방의학고교실 주관으로 싱가포르 지역사회의학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 집]

텔맥의 얼굴 찾아준 高大 의료진 고대 안암병원, 몽골 환이에게 무료수술



고려대 안암병원의 무료수술로 몽골에서 구순구개열(언창이)을 앓고 태어난 아이가 예쁜 얼굴을 찾게 됐다. 이번엔 무료 수술을 받은 아이는 일명 '언창이'로 불리는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올해 3월에 태어난 생후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텔맥이라는 남자아이다. 텔맥은 이 질병으로 인해 태어날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 젖을 먹는 것조차 힘겨워할 정도로 심각했다. 만약 방치할 경우 코와 잇몸, 치아, 윗턱까지 영향을 미쳐 성장하면서 얼굴 전체가 기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몽골의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치료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이의 딱한 소식을 접한 고려대 안암병원이 팔을 걷고 나섰다. 안암병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아이를 국내로 데려와 무료수술키로 했다. 7월말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한 텔맥은 한국관광공사의 도움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8월 2일 안암병원에 입원했다. 아이는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 전문 코디네이터가 통역에서부터 모든 진료 및 검사, 수술일정까지 조율해 아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8월 4일,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이루어졌다. 의료진은 생후 1년도 안된 어린아이인데다가 중요부위인 얼굴을 다루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수술에 들어갔다. 2시간 남짓 수술을 마친 텔맥은 엄마 품에 안겨 병실로 옮겨졌다.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하지만 워낙 상

태가 심해 7개월 후 2차 수술을 해야한다. 수술을 모두 마치면 이전보다 더 환하고 예쁜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암병원은 텔맥이 완치될 때까지 모든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의 어머니 국립체육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 무문씨(23세)는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인다”면서, “의료진분들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몽골어로 설명도 친절히 잘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텔맥은 수술이후 이미 입원해 있던 병동에서도 스타가 됐다. 낯선 이국땅을 찾아 치료받는 모습에 안타까워하던 의료진을 비롯해 함께 생활하던 병동 환자와 보호자들은 직접 몽골어를 배워 병실을 찾아 텔맥과 엄마를 격려해주고 있다. 한 병동 환자는 “갓난 아이가 입원해서 치료받는 모습이 너무 딱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수술 후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면서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텔맥의 무료수술 소식을 접한 몽골 주요 일간지중에 하나인 '투데이'에서 이미 미담사례로 보도했으며, 몽골 국영 TV인 'MNB' 에서도 몽골에서부터 국내로 동행취재하며 모든 치료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몽골 국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 오픈안내

생명과 사랑 나누는 매개체 역할 기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홍부외과 신경 교수)에서는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You believe, We care”, “장기이식은 또 다른 생명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두 사람을 잇는 하나의 리본

을 이용하여 생명을 나누는 장기 이식을 이미지화 했다. 홈페이지에는 오시는 길, 안내 전화번호 뿐 아니라 방문자가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서 각 이식 정보, 예약 화면으로 연결되는 의료진 소개, 신장이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플래쉬 동영상 등의 링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서비스메뉴는 센터 소개, 이식 정보, 이식 절차, 장기기증, 게시판, 자료실 등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1:1 상담과 FAQ를 통하여

력하는 경우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한 링크가 나타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다른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와 차별화하여 접근하기 쉽도록 했다. 장기이식센터 센터장 신경 교수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본원 이식센터의 경쟁력이 배가 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본원 장기이식 역량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홈페이지 오픈의 의미를 더했다.



이식혈관외과 박관태(왼쪽) 교수가 신장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친절리더 칼럼


친절,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서 시작하죠.

오늘 오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참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이미지 아닐까하면서요.

종전에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란 OO이다] 라는 개념과는 색 다르게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지란 내 안에 잘 정리된 불박이장과 같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배경에 맞게 나름대로 장롱 속 나누어 서랍을 만들어 그 서랍에는 자신만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당혹스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도 잘 정리된 서랍속의 나의 물건들을 꺼내어 사용할 줄 아는... 잘 정리된, 그리고 그 장롱 문을 닫아 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근사한 가구가 되는...

운전수 뒷 자석에 다운증후군이 친구 2명이 탔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내려야 할 곳이 다가오자, 일어서서 차안의 다른 손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자신의 친구에게 내려야 할 곳을 알려주다가, 그만 차가 조금 급정거하자 그 친구는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치며, 의자 밑으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 광경에 운전기사님은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우리 친구 서 있는 걸 모르고 차를 세게 운전했어요. 좀 있다가 앞문으로 내리도록 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마도 다른 분들은 당연히 사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사님의 음성과 눈매와 웃는 얼굴을 보았다더라면, 그 기사분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절절로 읽혀지고 느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리는 동안 차를 한동안 세워 거울로 내내 웃는 모습으로 내려서 멀어질 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그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순간 아이 이미지란 내 안에 잘 정리된 걸은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러나 쉽게 옮겨갈 수 없는 근사한 불박이장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라면, 성향은 내가 살아가면서 흡수처럼 나를 물들이는 것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체득하는 것들을 모두 내면화 되어 나타난 것이겠죠. 훈련된 마음(자동적 마음을 멈추고 선택적 반응을 하는 능력이 향상)이런 노력으로 언제든 내 성향을 곱게 물들이고 싶다면, 내 이미지는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멋지고 근사한 내만의 가구가 아닐까요? 




글 | 친절리더 김 선 희 (53병동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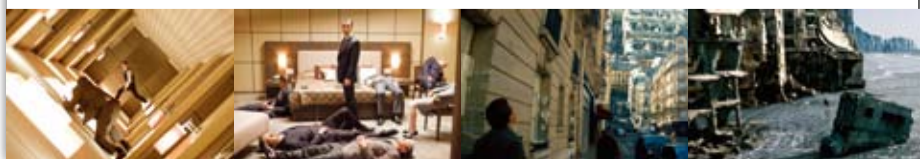
생각을 훔치는 거대한 전쟁! 당신의 머리 속이 범칙의 현장이 된다!

타인의 꿈속에 침투해 생각을 훔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이 분야 최고 실력자 ‘코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도망자가 된다. 어느 날, 거대기업 후계자의 머리 속에 새로운 생각을 심어 기업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의뢰인이 내건 조건은 거액의 돈과 코브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코브는 대단한 창의력으로 꿈의 공간을 설계하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진 건축학도를 비롯해 최고의 실력을 갖춘 5명의 드림팀을 조직해 작전에 나선다.

작전명 ‘인셉션’! 각각의 임무를 맡은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 표적의 머릿속에 생각을 입력하라! 그러나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표적의 무의식이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반격에 나선다. 물리의 법칙이 무너지는 가공의 세계, 이들은 ‘인셉션’의 성공을 위해 예상치 못한 적들과 불가피한 전쟁을 시작한다. 

생각을 훔쳐라 VS 생각을 지켜라
가까운 미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이부서 이사람

영양정보

RDCS(미국심초음파사) 자격증 취득!!! 심혈관센터 김정향 간호사

심혈관센터 김정향 간호사가 RDCS(미국심초음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간호사는 최근 San Diego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제21회 미국심초음파학회(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21st Annual Scientific Sessions-practical Applications of Cardiovascular Ultrasound in the 21st Century, ASE)에 참가했다. 이번 학회는 심부전, 심장판막 관련 질환 등 전반적인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심장초음파의 적용 및 환자관리방법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한 구조적, 기능적인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심장초음파의 활용방법, 임상현장에서의 발전된 새로운 심장초음파 영상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접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김정향 간호사는 학회 기간 중 American Registry for Diagnostic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ARDMS)에서 주관한 미국초음파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Registered Diagnostic Cardiac Sonographer(RDCS)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RDMS credential은 Sonography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정향 간호사는 “학회 기간과 시험이 맞물려 불합격할까봐 불안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매우 좋다. 앞으로 여러 심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의 심초음파 검사 시행시 학회에서 보고 들은 최신 지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더위 먹지말자, 보양식 먹자 단백질, 네가 여름 보약이었구나



에 닭을 넣거나 닭국물에 홍합을 넣어 먹기도 했다.

이에 못지않은 음식은 여름철에 많이 나는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 단백질과 갈슘, 무기질이 풍부하여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는 제격이다. 지방마다 끓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경상도와 전라도는 미꾸라지를 삶아 으개서 걸쭉하게 끓인다. 서울과 경기도는 사골과 내장을 끓인 국물에 두부, 버섯 등을 넣고 삶아놓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고 끓인다. 이를 추어탕과 구별해 '추탕' 이라고 했으며, 강원도는 고추장으로 국물의 간을 맞춘다.

경남 하동지방에서는 은어로 보양을 하는데, 뼈가 흐물흐물해 질 때까지 고아서 고기와 국을 따로 먹는 '은어백숙' 이라는 독특한 음식이다. 은어는 메기처럼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다. 최근들어서는 장어가 최고의 인기다.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식이기도 하다. 또한, 여름 장어를 제대로 먹으려면 '하모' 라고 부르는 것 장어가 제격이다. 주요 산지인 여수에서는 회로도 먹지만, 뜨거운 육수에 살짝 데쳐먹는 데침회

글 | 원내기자 조규은(종합건강진단센터)
choke0909@hanmail.net

계절의 변화나 몸의 상태에 따라 허한 몸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는 보양식은 왜 대부분이 단백질 식품일까? 보양식은 오래도록 우리 식생활에 자리잡아온 전통이다.

월드컵 기간 동안 치킨이 대세였지만, 이젠 삼계탕이다. 더욱더 오래 끓여서 먹는 것은 상식. 더구나 닭은 고단백질 식품이라 폭 삶아서 고기도 연하게 하고 우리나라 국물로 아낌없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식생활의 지혜다. 특히 튀김과 달걀 탕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콜라겐 성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 피부미용에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통째로 고아먹 먹기만 하는 건 또 아니다. 산간지역에서는 닭을 삶은 국물로 칼국수나 수제비를 빚어 먹었고, 해안 지방에서는 미역국

휴가 후 귀건강 챙기세요.

의학정보



물놀이 후 귀에 통증 있다면 외이도염 의심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귓병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원인은 여름철 기후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은 물놀이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 급성 외이도염이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이도는 귀를 구성하는 부분 중 귓바퀴(이개)에서 고막까지의 관을 의미하며 길이는 약 2.5 - 3cm 정도이다.

우리말에 굽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이러한 말이 급성 외이도염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봉으로 귀지를 제거하려다 보면 덥고 습한 날씨와 물놀이 이후에 물러진 외이도의 피부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귓속을 깨끗하게 하려다 오히려 귀에 병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외이도염의 증상을 보면 통증, 가려움증(소양감), 난청, 발열 등이 있으며 통증은 경한 불쾌감으로부터 심한 박동성 통증까지 다양하다. 특히 귓바퀴를 잡

아당길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귀를 들여다보면 귀구멍의 피부가 빨갱게 부어 있으면서 피부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귓구멍이 막히게 되고 귓바퀴 주위로 염증이 파급되어 귓바퀴까지 빨갱게 되어 통증이 오며 진물이 나기도 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세심한 외이도의 청소와 항생제, 소염제 등의 병합투여요법을 사용하며 고름에서의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원인이 되는 세균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만성중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귀에서 고름이 나오면서 귓구멍의 피부를 자극하므로 급성외이도염과 혼동할 수 있어 예방 및 자가관리에도 반응이 없으면 만성중이염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는 “외이도염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면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고 난 뒤에는 귓구멍의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면봉

으로 청소하기 보다는 선풍기 바람으로 귀를 말려주면 귓구멍의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습기를 말릴 수 있어 여름철 귓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귀지는 세균침입 막는 보호막, 스스로 떨어져 파낼 필요 없어 귀지 많아도 소리 듣는데 아무 지장없어

수영이나 물놀이 뿐만아니라 샤워후에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귀지를 제거하기 위해 후비거나 파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이도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물놀이나 샤워후에는 귀 속이 그야말로 약해져 있는 상황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 귀를 파내는 행동은 그야말로 귀에 상처를 내는 행동이다. 귀지는 내버려두자니 지저분하고, 제거하자니 혼자서는 쉽지 않다. 무리하게 후비다가는 고막까지 버릴 수 있다.

습관적으로 성냥개비나 금속물질을 사용해 귀지를 파내다가 오히려 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귀지는 제거할 필요가 없다. 외이도와 고막의 피부는 특이하게 귀 바깥 방향으로 자라 내버려둬도 귀지는 자연히 귀밖으로 배출된다. 그 이동속도는 하루 0.05mm로 손톱자라는 속도와 비슷하다. 또한, 귀지는 아미노산과 지방산, 병원균에 대항하는 라이소자임과 면역글로불린으로 이뤄져 있는데 병원균대상에 필요한 물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귀지가 많아도 소리를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오히려 귀를 후비면 물리적 자극으로 귀지선에서 더 많은 귀지가 분비될 뿐이다.

면봉이나 성냥개비로 귀를 후비면 귀지 표피층이 떨어져 나가 피부에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 자칫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만성 외이도염도 불러오게 되는데, 귀를 후비다가 귀지를 속으로 밀어 넣으면 문제가 커진다.

다음달 |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
외래 | 02)920-5485

